가정과 연계한 양성평등 그림책 활동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부모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효과

박 주 영(울산대학교 석사) · 김 영 주(울산대학교 교수)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보육/교육관련 시설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될 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가정과 연계한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나서 그 프로그램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부모의 성역할 태도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가정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유아관련 기관과 부모에게 그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o시에 위치한 3개 아동보육시설의 만 3세 42명, 만 5세 34명의 유아와 그 부모였다. 연구 기간은 2009년 7월 27일부터 10월 15일이었다.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척도는 Mayer(1996)의 성역할 고정관념 측정도구와 한국 직업 사전을 기초로 우민정(1995)가 제작한 검사도구를 연구자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의 성역할 태도 검사는 이춘자(1998)가 재구성한 성역할 태도에 관한 질문지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태도를 검사하고 나서, 가정과 연계한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8주간 실시하였다. 활동이 끝나고 나서 사후검사를 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α 계수, t 검증, 그리고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3세 유아와 만 5세 유아는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보이고, 만 5세아 보다 만 3세아가 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연구대상 유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양성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양성성이 더 높았다. 셋째,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는 연구대상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계가 없었다. 또한, 만 3세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 5세 유아는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와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넷째, 가정과 연계한 양성평등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에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지만,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에는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성별분업에서 효과가 있었다. 넷째, 가정과 연계한 양성평등 프로그램은 연구대상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특히 만 5세 유아보다 만 3세 유아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성역할에 관한 개념을 형성하는 유아기에 효과적인 양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가정과 연계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과 연계한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